

관광산업의 신성장 모델 : 저탄소 녹색관광

2010. 5. 17. 제63호

금기용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관광산업 신성장
모델 필요성**
- II. 해외 저탄소 녹색관광 산업의 주요 사례**
- III. 서울시 저탄소 녹색관광 산업 육성 전략**

요 약

저탄소 녹색성장 모드는 지구환경을 구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1992년 브라질 리우 지구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의거하여 환경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그 후 20여 년이 흐른 지금, 세계는 그 동안의 생산중심 주의적 경제성장 모드로, 생태계 위협을 넘어 인류의 생존 위기까지 초래할 지구온난화에 대처해야 할 시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욱이 2008년 말 미국 발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는 기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가져왔다. 그 결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 경제성장 개념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 적극적, 근원적인 접근방법으로 세계의 관심이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맞도록 관광산업도 변신이 필요

과거 20~30년간을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적 생산 중심 경제성장 모드의 견지에서 볼 때 관광산업은 단순히 ‘굴뚝 없는 공장’, ‘친환경 청정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으로 볼 때 종래의 관광산업 성장 모델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기 어렵게 되었다. 2008년 관련 국제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관광산업의 온실가스 CO₂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하였고, 향후 이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속에서 지구 환경에 위해요소를 배출하는 산업은 조만간 퇴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관광산업도 시대 패러다임 흐름에 맞춰 저탄소 녹색관광으로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해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블루오션인 저탄소 녹색관광산업은 시장 선점이 관건

저탄소 녹색관광 시대에 관광산업 시스템 내의 관광객과 사업자들에게는 단순히 개개인의 웰빙을 고려하는 것보다 지구의 웰빙을 더 생각하여 개인의 이익이나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대승적 목표가 요구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관광 요소들의 자원화와 산업화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은 블루오션 시장이다. 이러한 초기 저탄소 녹색관광 시장 선점 효과의 중요성은 다른 첨단 산업 시장에서의 학습효과로 이미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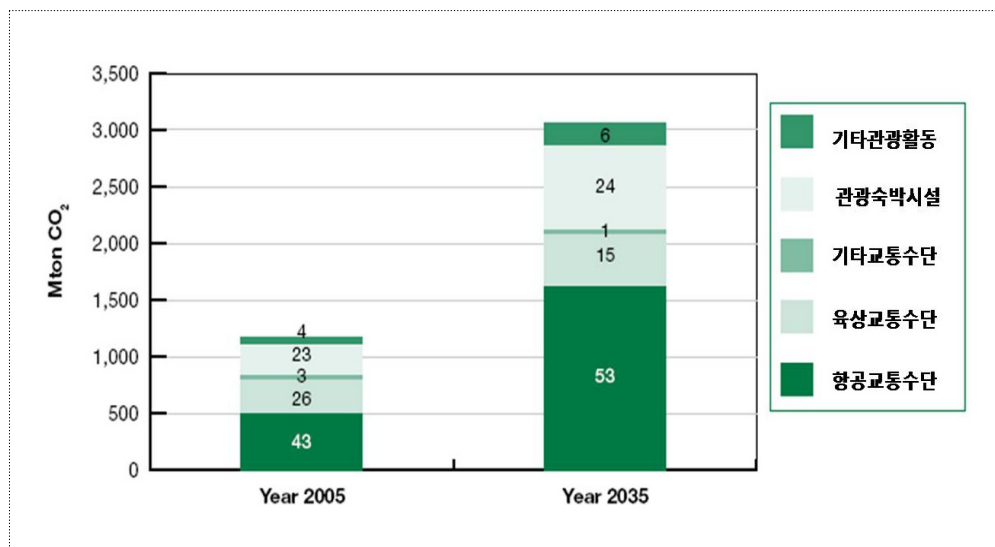
서울시는 미래 핵심 성장동력 산업인 저탄소 녹색관광의 산업화와 이의 육성, 그리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녹색기술의 관광산업은 초기 비용이 높다. 그러나 손익분기점이 기존 산업에 비해 빠르게 도달하며 그 이후의 비용절감 효과는 다른 산업에 비해 무척 크므로 중장기 안목을 가지고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

I.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관광산업 신성장 모델 필요성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적신호

□ 관광산업의 친환경적 의미가 퇴색 중

-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속의 관광산업은 오염배출 산업
 - 과거 '굴뚝 없는 공장'이라는 관광산업은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분류
 - 그러나 저탄소 녹색 패러다임의 기준으로 볼 때 기존 관광산업의 대부분은 에너지 집약적이고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 산업으로 전락
- 관광산업의 경우 주로 이동수단과 숙박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배출
 - UNWTO/UNEP/WMO의 2008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관광산업이 배출하는 CO₂ 양은 전 세계 CO₂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하며, 이 상태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향후 10년마다 그 비율이 두 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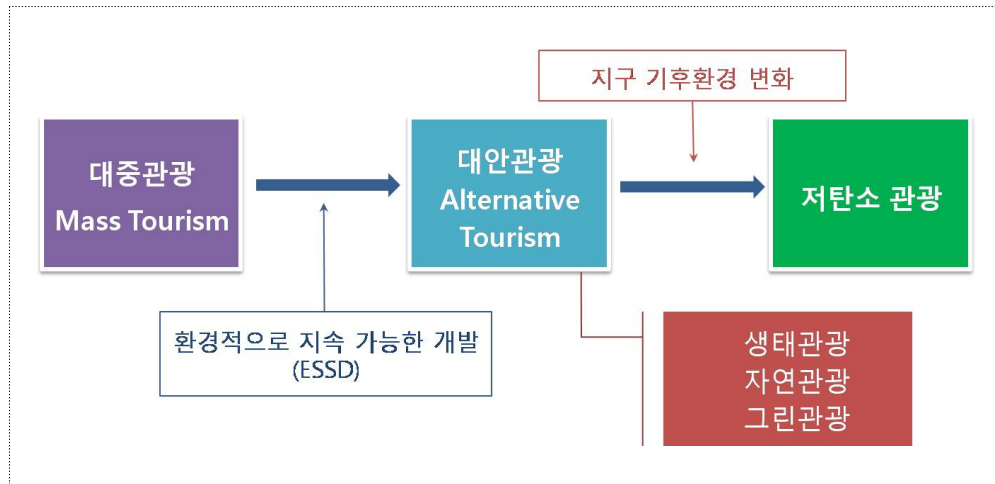


자료: UNWTO, 2008, "Climate Change and Tourism - Responding to Global Challenges".

[그림 1] 세계 관광산업의 CO₂ 배출현황 및 향후 예측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는 관광산업의 기회이자 생존 과제

- 대중관광(mass tourism)과 생산 중심 경제성장 모델과는 서로 유사
 - 과거 대중관광은 관광 수요의 양적 확대를 의미
 - 대중관광이 생산 중심 경제성장모델(productivism)과 유사하게 환경에 부작용을 초래
 - 관광지 개발, 대량 관광객과 원주민 이동은 현지 환경과 전통문화 훼손, 주민과의 갈등과 같은 역기능도 발생
 - 생산 중심 경제성장 모델은 환경문제의 근원
 - 생산 중심 성장모델은 생산 극대화를 위한 자원에 대한 과수요를 발생시키며, 지구환경에 치명적인 부산물을 내보내면서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 등과 같은 환경문제를 심화
-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은 초기 환경주의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모델
 - 198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환경문제 이슈가 확산되면서 관광분야에서도 친환경적 대안관광 개념이 등장
 - 생태관광, 그린관광, 관광농업 등과 같은 친환경적 관광모델과 교육관광, 헬스관광, 체험관광과 같은 개인복지 추구형 관광모델 등을 포함되는 개념
 - 이는 미시경제적으로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소비자의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이면서, 거시적으로는 친환경적인 국제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등장한 관광 성장 모델



[그림 2] 대중관광에서 저탄소관광까지 관광 패러다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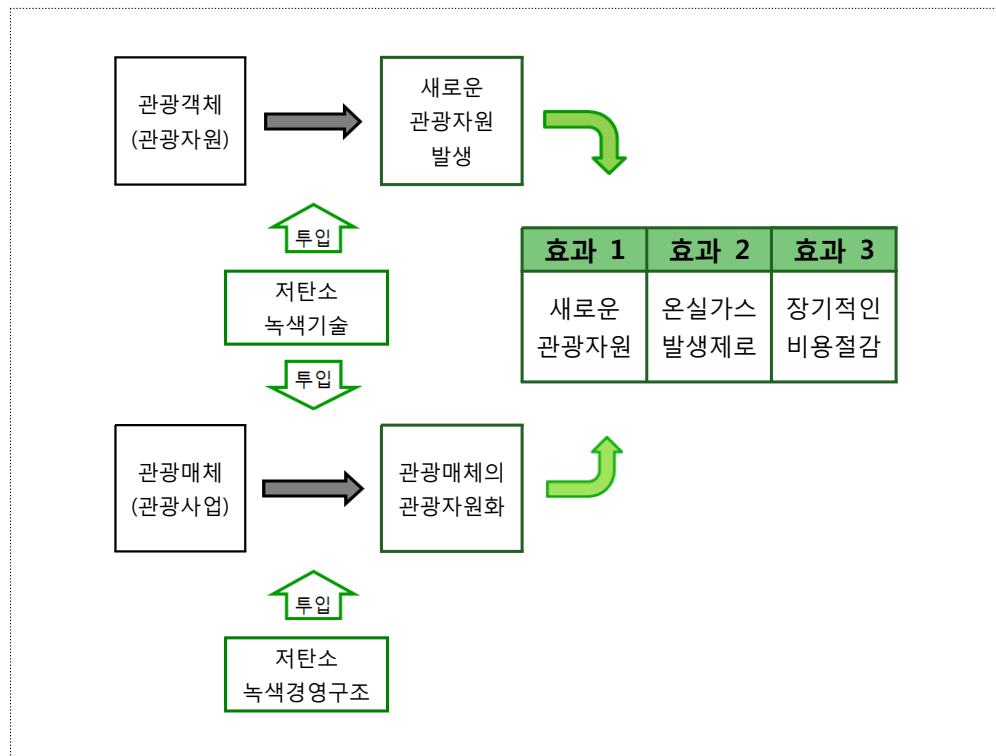
- 근래의 로하스(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관광은 후기환경주의 저탄소 녹색성장 흐름에 부합
 - 로하스 관광은 개인의 건강(웰빙)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생태계 및 지구환경의 웰빙까지 고려하여 친환경적 관광과 상품을 소비하는 개념
 - 이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생산 중심(productivism)에서 소비 중심(consumerism)의 경제 성장 패러다임으로 변모하고 있는 추세에 부합
 - 로하스란 '건강과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 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 집단을 의미
 - 저탄소 녹색성장과 로하스 관광을 잘 융합할 경우 관광산업의 블루오션을 창출할 가능성 증대
 - 로하스 관광 패러다임은 아직은 환경주의와 후기환경주의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며, 저탄소 녹색성장과 로하스 관광과는 서로 잘 어울리는 개념

<표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광 패러다임 변화

관 광	패러다임 변화	
	1980s - 2008(금융위기) ➡	금융위기 이후
핵심 개념	웰빙(Wellbeing) (물질적, 정신적, 개인적)	로하스(LOHAS) (기능적, 이타적, 사회적)
성장 모델	자연 및 문화자원 활용 - 생태 및 문화관광 - 여가 및 휴양관광	과학 · 기술 · 지식 · 감성자원 활용 - 지식, 첨단기술 관광 - 사회, 교육 관광 - 참여, 체험 관광
전 략	새로운 관광산업 성장 전략 ➡	저탄소 녹색 관광산업

관광산업 신성장 모델은 결국 저탄소 녹색관광

- 저탄소 녹색관광은 기존과 다른 관광자원과 상품을 창출
 - 기존 관광이 단순히 자연 및 문화자원을 이용하는 형태라면, 저탄소 녹색 관광은 녹색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자원이나 상품을 이용하는 형태에 해당
- 저탄소 녹색 관광산업의 사업체들은 새로운 경영기술과 마인드가 필요
 - 관광매체의 경우, 관광객들이 단순히 숙식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저탄소 녹색기술과 저탄소 녹색경영 마인드와 구조를 구축할 필요
 - 저탄소 녹색관광 사업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기존 관광 수요와 경쟁체제를 형성하거나 그들을 대체할 가능성이 상존



[그림 3] 저탄소 녹색관광 산업 구조

- 저탄소 녹색관광에 있어 가장 절대적인 수단 중 하나는 녹색기술
 -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을 관광에 적극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기존 관광과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 이러한 GT(예측기술, 에너지원기술, 고효율화기술, 사전예방기술 등)에 IT·BT·CT·KS(knowledge service, 지식서비스) 등의 기술을 융합하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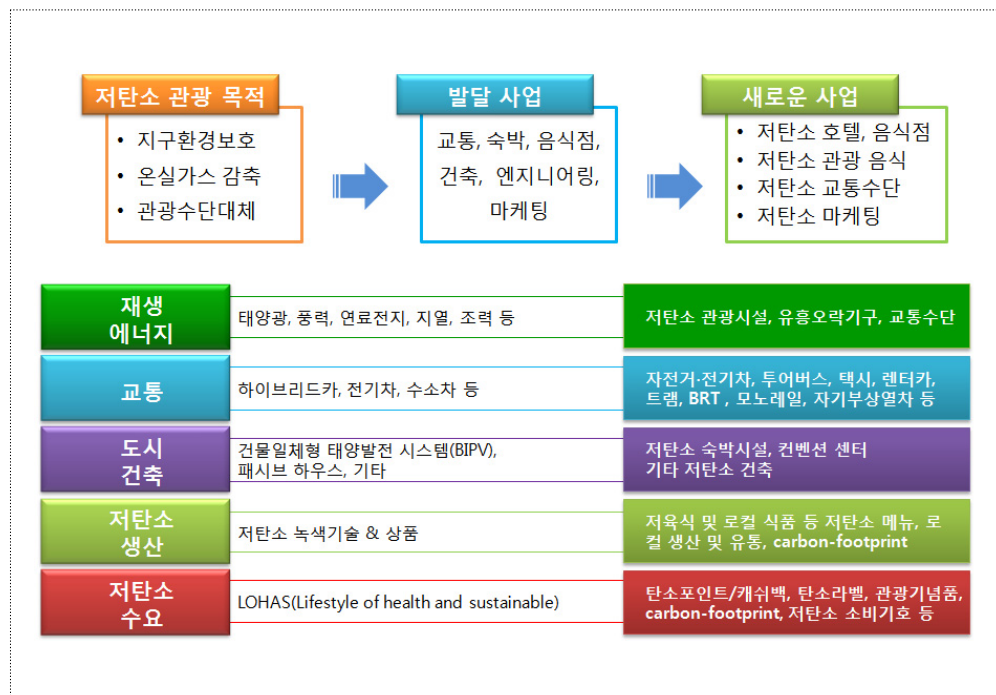
저탄소 녹색 관광은 종래의 관광 시스템의 대변혁을 요구

- 저탄소 녹색관광 성장을 위해서는 관광 요소 모두의 변화가 필수
 - 새롭게 제시되는 저탄소 관광은 관광에 투입되는 모든 요소에 저탄소 기술과 저탄소 경영기법 등을 적용

- 궁극적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창출하고 지구환경 위해요소의 발생을 저감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 제로를 목표로 설정
- 저탄소 관광시대의 관광산업은 교통, 숙박, 음식점 등 기존의 관광사업과 중첩되지만 그 형태나 요소들이 이전과 다르게 교체되거나 변경
- 종래와는 다르게 건축기술자, 엔지니어, 과학자, 경영스태프 등 이전의 간접적인 후방지원(back-of-the-office) 구성원들까지 직접 관광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

□ 저탄소 녹색관광 기술은 그 자체로 혁신적인 관광사업과 수요를 창출

- 건축기술이나 엔지니어링 등 융합기술이 관광산업에 투입되어 기존의 관광산업의 경관을 혁신적으로 변모
- 신재생에너지는 관광 활동에 필요한 탄소 프리 에너지를 제공



[그림 4] 저탄소 녹색관광 비즈니스 모델

- 저탄소 녹색관광 교통수단을 적용할 시 기존 시설 개조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교통수단이 기존 내연기관을 교체
- 저탄소 녹색기술이 도시의 건축물을 만나 저탄소 녹색관광 호텔, 컨벤션 시설 등으로 변모
- 이와 같은 저탄소 녹색관광 기술은 새로운 관광사업과 수요를 창출

저탄소 녹색관광은 개인적이 아닌 대승적 차원의 목표

- 저탄소 녹색관광의 목적은 개인적인 것일 수 있지만 그 목표는 생태계 보호, 온실가스 감축 등 대승적 차원
- 저탄소 녹색관광 시대의 관광객과 사업자는 개개인의 웰빙을 우선시하며 부수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구하던 과거 패러다임 시대와 달리 지구의 웰빙을 더 생각하는 구성원에 해당
- 저탄소 녹색관광의 주요 대상은 재생에너지 이용시설, 오염 제로 수송수단, 저탄소 도시 및 건축물, 탄소 마일리지와 같은 저탄소 경영기술 및 상품, 그리고 저탄소 녹색 사회와 문화 등 다방면적이고 포괄적

II. 해외 저탄소 녹색관광 산업의 주요 사례

저탄소 녹색관광 운송수단

□ 프랑스 파리의 '오토리브'(autolib)

- 오토리브는 파리의 명물 '벨리브'(Velib)를 벤치마킹한 전기자동차 대여 서비스
 - '벨리브'는 2007년에 시작하여 파리의 명물이 된 자전거 대여 서비스로, 순식간에 자전거 왕국인 네덜란드 등을 제치고 자전거 관광 대국으로 발돋움
 - '오토리브'는 전기자동차 대여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내 어디서든 빌려 이용한 후 아무 대여소에나 반납하면 되는 시스템
- 파리는 2010년 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시내 2000대, 교외에 2000대의 전기자동차와 700곳의 대여소를 설치할 예정
 - '오토리브'가 시민의 자동차 소유를 억제하고 운행을 줄여 대기오염 교통 환경 개선은 물론 교통난 해소와 동시에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기대



[그림 5] 파리의 대여 자전거 Velib와 전기차 Autolib(컨셉카)

□ 호주 애들레이드의 '틴도(Tindo) 버스'

- 세계 최초 100% 태양광 전기버스를 도입
 - 틴도는 버스터미널 옥상에 설치된 5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7~8시간의 충전으로 하루 종일 운행이 가능
 - 무료로 운행 중인 틴도는 귀뚜라미를 닮은 친근한 외관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호응이 높아 애들레이드시의 명물로 부상

□ 기타 여러 나라에서도 저탄소 녹색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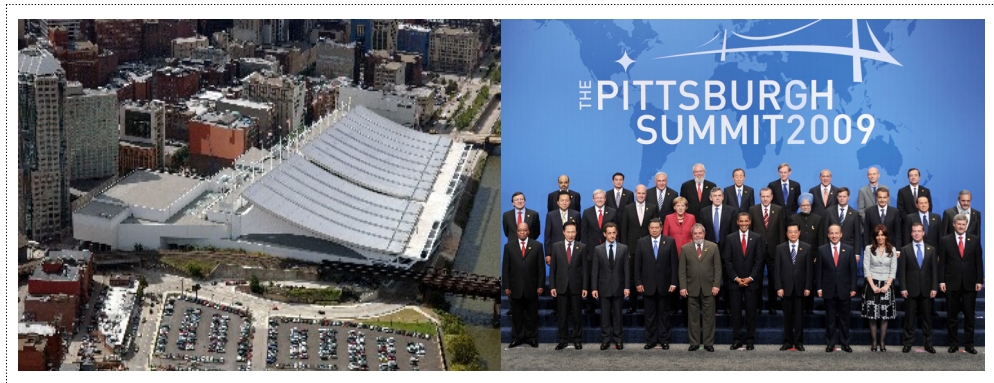
- 일본, 덴마크, 미국 등의 여러 도시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저감된 경전철이나 바이오디젤을 이용한 차량 도입을 꾀하거나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

<표 2> 도심 저탄소 녹색관광 교통수단 도입 해외사례

국가명	도시명	내용
일본	도마야현	- 이산화탄소 배출량 1/10로 줄인 경전철 도입
	후쿠오카	- 그린 시티투어버스 운행
프랑스	파리	- 무인 전기자동차 대여 시스템 '오토리브' 시행 계획
덴마크	코펜하겐	- 시티 바이크 프로젝트 - 무인 자전거대여 시스템을 이용한 친환경 교통 정책
미국	샌프란시스코	- 대중 교통수단 100% 전기나 바이오디젤 차량으로 교체 -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플러그인 인프라' 설치
	포틀랜드	- 자동차를 공동 사용하는 'Zipcar' 서비스 시행 - 도심 대중교통 수단인 지상전차 스트리트 카 운행 - 에어트램(air tram) 운영
호주	애들레이드	- 100% 태양열 전기 버스 'Tindo' 운행

저탄소 녹색관광 도시 랜드마크

- 미국 피츠버그의 랜드마크 'David Lawrence Convention Center'
 - 미국 빌딩위원회(GBC)가 세계 최초로 인증한 '녹색건물'로, 2009년 9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그 건물과 도시의 품격을 동시에 높인 시설
 - 이 건축물은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자연 환기, 일광 센서, 일산화탄소 센서, 물 재활용 시스템 등을 도입
 - 전체 에너지를 35%나 줄이고 물 소비를 60% 절약하였으며, 전시공간의 75%를 자연채광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앨러게니 강에서 올라오는 자연 기류를 빌딩의 통풍이나 냉방에 활용
 - 페인트나 카펫 등 내부 인테리어 자재도 친환경 자재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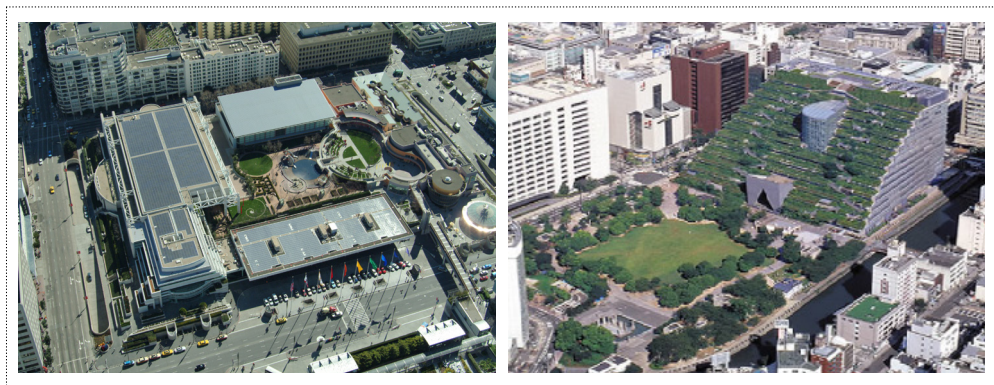
[그림 6] 미국 피츠버그의 녹색 컨벤션 센터 'David Lawrence Convention Center'

-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모스코니'(Moscone) 컨벤션 센터
 - 샌프란시스코는 저탄소 경제 시대의 기준을 제시하는 세계의 '녹색 수도'(Green Capital)를 목표로 변신 중

- Gavin Christopher Newsom 시장은 샌프란시스코를 케이블카보다 전기 자동차가 흔한 도시, 녹색 가치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로 변화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 미국 내 공공건물 중 최대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갖춘 컨벤션 시설
- 미국 그린빌딩위원회(GBC)의 친환경건축기준(LEED) 최고 등급 인증
- 대형 오피스 복합건물인 마스코니 컨벤션 센터의 옥상은 축구장 2/3 크기의 5330㎡ 면적에 5200여 개의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하는 전력(675 kW)으로 자급자족
- 건물에 쓰인 콘크리트의 50%는 재활용 재료로, 건물 단열은 100% 폐창바지로 마감하였으며, 한여름에도 에어컨 없이 평균 23℃ 정도의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그린빌딩

□ 일본 후쿠오카의 녹색건물 ‘아크로스 후쿠오카’

- 도심의 작은 산으로 보이는 13층 규모의 이 건물은 도심 열섬현상을 줄여 여름에 콘크리트 표면보다 건물 수목 녹음 속의 온도가 약 15℃ 이상 하락
- 이 건물은 시민과 관광객에게도 개방하고 있으며 건물 위층 전망대에 오르면 주변 시가지와 항구까지 내려다보이는 후쿠오카의 관광명소



[그림 7] 샌프란시스코의 ‘Moscone Center’(왼쪽)와 일본 후쿠오카의 ‘아크로스 후쿠오카’(오른쪽)

<표 3> 저탄소 녹색관광 도시로 변신 중인 해외 도시 사례

국가명	도시명	내용
일본	고가	- 제로에미션 하우스: 풍력,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사용 가능한 모든 발전시스템을 구비
	마에바루	- 세계 최대의 수소 타운
	타마 뉴타운	- 빗물과 오수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 빗물을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방류 - 쓰레기 진공집진, 지역냉난방, 중수도 등 친환경 기반 시설 - 자연과 녹지는 가능한 원형 그대로 유지한다는 원칙 하에 개발
	팰타운	- 세계 최대의 중앙 집중형 태양광 발전 마을
덴마크	코펜하겐	- '친환경 교통정책'의 요람, 무인 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이용한 '시티 바이크 프로젝트' - 낡은 건물 등을 리모델링할 때 자연광을 위해 유리를 사용, 친환경 자재를 이용하고 바닷물과 태양열을 최대한 이용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독일	프라이부르크	- 태양광 발전의 생활화 - '헬레오톱'(Heliotrop)이라는 태양에너지 주택
스웨덴	함마르비	- 오염된 공장지대를 1992년부터 생태계획도시로 재개발 - 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은 노면 전차, 스톡홀름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페리를 이용하여 호수를 횡단 - 버스는 하수처리 부산물인 바이오가스를 이용, 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난방과 발전의 연료로 활용
영국	베드제드	- 화석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주거 단지 - 태양열 집열판, 쓰레기를 태우는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전기와 온수 해결
프랑스	라가	- 화장품 회사가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식물 재료 공급을 위해 마을에 정원을 가꾸기 시작한 것이 친환경마을의 시작 - 100% 친환경 호텔: 태양광으로 전기와 온수공급, 호텔 식당 메뉴 80% 이상이 유기농, 객실 비품 모두 무공해제품이며 안내문 부착
미국	랄리	-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기, 물, 쓰레기 문제와 환경교육에 집중 - '스마트 대안 통근제'를 실시,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쿠폰을 통해 20% 할인 - 에어컨 냉각탑의 물, 옥외 분수 물을 재활용, 화장실 물 절수 등
	피츠버그	- 주된 산업이던 공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1950년대 이후 '공해도시'라는 오명 - '피츠버그 문화 트러스트'등 도시 브랜드 마케팅과 수질대기오염 극복, 공공녹지 및 도시경관조성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녹색문화도시로 거듭남.
브라질	꾸리치바	- 서울 버스시스템 개편의 모델이 된,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대중교통과 녹색교통 모델도시 - 버스를 타기 전 요금을 지불하는 시스템, 승하차 시간을 줄이고 엔진 공회전 방지 - 자전거 도로망 완비와 '꽃의 거리'라고 불리는 보행자 전용 공간 - 'zero waste 운동', '그늘과 시원한 물 프로그램', '쓰레기 아닌 쓰레기 박물관' 등

저탄소 녹색관광 온라인 마케팅

- 영국의 공식 관광안내 웹사이트인 'enjoyEngland.com'에서 '영국의 저탄소 여행'을 안내, 홍보
 - 국가나 도시 관광안내 공식 웹사이트에 저탄소 관광과 관련된 홍보와 안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 주요 콘텐츠로 '녹색휴가 제안', '카본 공정 및 유통(carbon footprint) 최소화', '농부의 마켓', '녹색 숙박시설 및 관광지 안내', 녹색 볼거리 및 활동, 그리고 녹색 관광객 지침 등에 대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
- 보스턴의 그린투어리즘 온라인 마케팅(www.bostongreentourism.org)
 - 관광객에게 보스턴의 환경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 보스턴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아름다움, 천연 관광자원, 야생 레크리에이션의 기회 등의 환경친화적인 관광서비스를 제공
 - 주요 제공 정보 및 서비스 콘텐츠
 - 보스턴 녹색 인증 호텔 안내(인증기준: 에너지 효율성, 폐기물 관리, 실내 공기질)
 - 녹색음식점협회의 녹색 인증 식당 안내 홍보(인증 기준: 근거리 수확 농작물, 친환경적 재배(무고통 사육) 등)
 - 보스턴 시내 3개소 녹색 인증 컨벤션 센터를 안내, 홍보

Ⅲ. 서울시 저탄소 녹색관광 산업 육성 전략

저탄소 녹색관광의 조속한 산업화 추진

- ☐ 블루오션인 저탄소 녹색관광은 시장 선점이 관건
 - 저탄소 녹색관광은 단순 개념이나 슬로건이 아닌 현실 세계나 일상생활에서 실제 적용단계에 이미 진입
 - 저탄소 녹색관광시장은 아직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단계가 아닌 블루오션이므로 조속한 산업화 노력이 필요
 - 전자·통신 기술들과 같은 첨단산업 및 새로운 시장은 초기 선점이 관건
 - 서울은 선도적으로 저탄소 녹색관광 산업화 전략 추진이 필요
 - 저탄소 녹색 관광 자원화 및 상품화를 통해 새로이 열리고 있는 저탄소 관광 시장 개척 및 선점 전략을 마련

☐ 주요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 전략
저탄소 녹색관광의 산업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기술 적용 관광사업체 인센티브 기준 마련 - 저탄소 관광접객 시설 신축 및 개축 유도 - 저탄소 관광상품 및 서비스 구입 인센티브 도입 - 탄소배출 제로 관광교통수단 보급 및 관광자원화
저탄소 녹색관광 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저탄소 녹색기술 적용 관광상품 개발 - 저탄소 녹색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저탄소 녹색관광의 산업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 저탄소 기술 적용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 마련

- 저탄소 적용 사례를 기존 에너지 절감률과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율로 구분하여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
- 궁극적으로 기존 화석연료나 비환경적인 에너지 소비를 조속히 청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도록 유도
- 저탄소 기술 적용 사업체에 재산세나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기준을 마련할 때 관광특구나 관광객 이용시설들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관광사업체들의 저탄소 사업 전환을 조기에 유도

☐ 관광객 접객시설들을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BIPV), 풍력, 지열 등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는 '저탄소 건물'로 신축 및 개축 유도

- 개축하기에는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 있는 건물들을 저탄소 건물로 개축할 경우 허가를 완화해주고, 개축 비용에 상응하는 증축(용적율 상향 등) 등으로 사업성을 올려주는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저탄소 관광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따른 탄소 포인트/캐쉬백 제도 도입

- 이를 위해 우선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라벨 혹은 탄소 Foot-print 제도 등을 우선적으로 관광사업체에 도입

☐ 탄소배출 제로 교통수단 보급 방안

- 서울시 차원에서 전기차나 연료전지 차량을 구매 시 정부의 인센티브 외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

- 이러한 청정 교통수단 확대는 고품격 도시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알릴 좋은 기회
- 서울시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스템을 먼저 설치하고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을 기존 차량에 우선하여 확보
- 향후 공공 주차시설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도심 투어용 전기차 대여 서비스 추진 검토
- 아직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도시는 없으나 파리의 오토리브(autolib)는 2010년 서비스 개시 준비
- 전기나 태양광 버스 등 배출가스 없는 대중교통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에게 탄소포인트제를 도입
- 향후 이 포인트를 시민이 모아서 더 많은 차량 구입을 위해 기부하는 캠페인 검토

저탄소 녹색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

☐ 첨단 저탄소 녹색기술 적용 관광상품 개발

-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BIPV), 지열, 풍력 등을 이용하는 관광호텔이나 관광음식점, 혹은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교통수단 등을 이용 관광객에게 저탄소 관광상품을 제공
- 현재 기술개발이 거의 상용화 단계에 와 있는 BIPV의 경우 도시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수많은 고층 건물 자체가 태양광 발전소로 바뀌어 색다른 저탄소 도시경관을 체험해 볼 자원을 창출

- 예를 들어 63빌딩 외벽에는 박막형 태양전지를, 유리창에는 염료감응형 투명필름 태양전지를 부착하여 온 건물에서 태양발전을 할 경우 로하스 관광객들에게는 최고의 서울의 저탄소 관광 명물화가 가능
- 향후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초고층 빌딩들을 에너지 킬러가 아닌 바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첨단 빌딩으로 계획하여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이 필요 (현재 계획 중인 컨벤션 센터 포함)
- 서울시 공식 관광안내 홈페이지에 '서울의 저탄소 녹색 투어' 섹션 구축
 - 저탄소 녹색투어 섹션은 서울시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각종 친환경 장소, 대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홍보 마케팅할 필요
 - 저탄소 녹색관광 자원들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외에 교육 및 시찰 관광객 유치 효과까지도 클 것으로 예상
- 특히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관광시설의 경우,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그 자체로서 볼거리와 체험하는 관광 매력을 제공
 - 기존 관광호텔들이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첨단 대체에너지 생산 빌딩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서울시와 협력하여 추진할 경우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저탄소 및 대체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랜드마크, 호텔, 교통수단 등이 많아 질수록 서울의 국제적 이미지 향상에 기여
 - 관련 교육 및 시찰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해외 단체관광객 유치도 가능
- 장기적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큰 저탄소 녹색기술을 조기에 적용하도록 관광사업체들에 적극 홍보

- 저탄소 녹색 기술을 적용한 관광객 이용시설들은 초기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운영 시 별다른 비용이 거의 없어 투자비 회수 기간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당히 단축
- 향후 손익분기점에 다다랐을 때 소요되는 원가나 운영비가 거의 없어 대폭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
- 따라서 저탄소 녹색관광 산업화 추진계획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과감하게 투자되도록 적극 유도

금기용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13

kykeum@sdi.re.kr